

Relation Government News

광주시, 한국광기술원

광산업기술력향상사업 '순항'

24개 기업지원과제 진도 100%

광주시와 한국광기술원이 광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기술력향상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업기술력향상사업은 자체적인 R&D(연구개발) 수행능력이 부족한 光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부터 사업화까지全流程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1차(2006년)년도 과제의 최종평가를 앞두고 최근 산업자원부가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3대 중점 사업유형 24개 과제 모두 100% 안정적으로 마무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원중인 과제는 중소·벤처 기업 및 광산업체의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광제품설계지원' 사업 12개 과제를 비롯하여

중소기업이 확보하지 못한 핵심 기술을 개발·지원해 광산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요소·공정기술개발' 7개 과제, 종합적인 기술지도와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도입된 '광기술 주치의' 5개 과제이다.

특히, 본 사업을 통해 출원된 특허도 12건으로 당초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어 사업 종료 시에는 더 많은 실적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2차년도에도 20개의 새로운 과제를 선정,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2차년도 지원사업은 기존 3대 중점분야인 'LED, 광통신, 광응용' 분야를 포함하여 시가 미래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① LED/반도체조명/디스플레이 ②유비쿼터스통신, ③마이크로옵틱스/나노포토닉스, ④광의료 등 4대 핵심 광기술분야로 확장함으로써 기술융합과 유비쿼터스시대의 도래에 따른 급격한 기술 확산기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광산업기술력향상사업은 광주시가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전문 기술지원사업으로써, 광산업체 지원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광산업 1,2단계 사업으로 구축한 한국광기술원의 인프라 활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광주 광산업이 명실 공히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됨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경인지역 등 역외 기업의 유치 효과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과학산업과)

고등광기술연구소

이종민 소장 아시아 고강도 레이저 위원회(AILN) 의장 선출

- 이종민 소장 '아시아 레이저 위원회' 의장 선임
- 인도 및 일본 등 연구소와 공동연구도 합의



(이종민 소장)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가 해외 우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소장이 국제연구단체의 단체장으로 선임되는 등 아시아 레이저 연구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원장직무대행 문승현) 고등광기술연구소(APRI, 소장 이종민)에 따르면 이종민 소장(신소재공학과 교수)은 지난 1일 아시아 고강도 레이저 위원회(AILN)의 의장으로 선임됐다. 이로써 이소장은 앞으로 3년동안 AILN의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AILN은 유럽과 미국에 대응하여 지난 2004년 고등광기술연구소의 주도하에 설립된 아시아 지역 초고출력레이저 연구를 위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국제 고강도 레이저 위원회(ICUIL)의 협력기관이며 현재 한국, 일본, 중국, 인도를 포함한 약 16개 아시아 국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인도, 일본, 독일의 세계적인 연구소와의 교류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 COEX에서 개최된 '2007 CLEO PR' (2007 Conference on Lasers Electro-Optics Pacific



Rim)에서 인도의 타타연구소(Tata Institute of Fundamental Research at Mumbai), 일본의 도호쿠 대학의 리켄연구소(RIKEN Sendai)와 연이어 공동연구를 위한 협의를 마쳤다. (연구소는 타타연구소와는 초고레이저 장치에서의 광자와 물질간 상호작용 등에서, 그리고 리켄연구소와는 테라헤르츠(용어설명참조) 광기술 연구 분야 등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연구소는 또한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Max Plank Institute of Quantum Optics at Garching)와도 테라헤르츠 펄스 레이저를 이용한 초고속 분광학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종민 소장은 "AILN 의장 취임을 계기로 아시아 고출력 레이저 연구가 미국,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고출력 레이저 연구를 주도할 수 있도록 고등광기술연구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7 지역혁신 성공사례, 대통령상 수상

-전국 최초 지역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혁신자원DB 통합-

광주지역 내 13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광주지역 혁신자원 DB 통합시스템 협의회"(협의회장 : 광주테크노파크 남한일 원장, 이하 "협의회")는 "2007년 지역혁신 성공사례 경진대회"에서 연구지원기관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하여 2007년 9월 17일에 개최된 "제4회 지역혁신박람회" 행사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광주테크노파크는 "협의회" 운영 주관기관으로서, 13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광주전략산업종합정보망(GSIIS) 구축" 사례를 그간 두차례 발표하여 지역 예선대회와 전국 본선대회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였다.

협의회는, 금번 광주전략산업종합정보망 구축 추진사례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주요인으로서, 수요자 접근성의 개선 및 기술혁신활동의 활성화, 기관간 시스템개발 중복방지에 따른 예산절감, 전국 최초로 지역내 유관기관간 협력적 네트워킹을 통한 DB의 통합 등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광주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현장밀착형 on-off line 컨설팅 프로그램인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하

여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광주 전략산업종합정보망(GSIIS)"은 2006년 6월부터 약 9개월에 걸쳐 구축되었으며,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광정보지원센터 구축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 전략산업종합정보망(GSIIS)"의 시스템 설계/구축으로 금년 5월부터 정상서비스가 되고 있으며, 광주 전략산업인 광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디자인산업, 문화/IT산업의 전문인력, 공동 활용장비, 기업체에 대한 약 3,500건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전략산업 공지사항", "사업공고", "교육행사안내", "전략산업뉴스", "최근 Focus", "간행물"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기능을 구축하였고, 특히 전략산업 현황에 대한 "통계조회" 기능을 추가하여 명실 공히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종합정보망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

"광주지역 혁신자원 DB 통합시스템 협의회" 참여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고등광기술연구소
- 광주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
- 광주디자인센터
- 광주전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 광주전략산업기획단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전자RIS사업단
-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 한국광기술원
- 한국광산업진흥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연구센터

Relation Government News

광주광역시

LED조명산업기반구축사업 전국1위

- LED조명산업기반구축사업 전국1위
- 광주시, LED산업 성장 가속화

광주시가 광산업2단계사업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3,863억원을 투입하여 광통신과 차세대 광원인 LED분야를 특화 육성시키면서 추진해온 LED조명산업기반구축사업이 산업자원부 전국평가 1위를 차지하여 LED산업의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광주시가 LED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 한국과학기술원이 2001년부터 300여종의 시험생산장비를 구축하였고 내년까지 300여억원 규모의 반도체광원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LED조명산업기반구축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143억원을 투입. LED조명관련 장비구축 및 시제품 생산지원, 맞춤형 기술컨설팅, 현장기술개발지원을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LED조명이 조명기구를 비롯해 신호등, 자동차 등 각 분야로 급속히 확산. 시장규모가 늘면서, 광주지역 LED관련업체는 2004년 41개에서 2007년 90개로, 매출액은 2004년 1천억원에서 2007년 3천억원으로 3년만에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금년에 LED업체로 100억원이상의 매출이 기대되는 업체는 LG이노텍, 서울반도체(광주공장), 대방포스텍, 디에스아이, 포에프 등 5개 기업으로 매출규모가 1천450여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LED업체인 LG이노텍(대표 허영호)는 금년 4월 국내 최초로 자이오비 패키지 LED를 냉장고와 국내 RV차량 내부조명에 적용하고, 추가로 와인냉장고, 식기세척기, 실내조명시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인 대방포스텍(대표 이현도)과 LED라이텍(주)이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대방포스텍은 '앙드레김 조명'을 제작·발표하면서 현대건설, 삼성물산, 쌍용건설 등 국내 내수와 두바이, 베트남 등 해외 수출로 160여억원대의 매출성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LED라이텍(주)은 무드기능과 밝기 조절이 되

는 실내용 Room Lamp를 세계 최초로 개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여 금년 하반기 스타렉스 모델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조성된 LED밸리에 47개사가 분양·체결되어 현재 입주를 시작하고 있고, 내년에 70여개사의 입주가 완료되면 년 3천억원의 생산증대와 2천여명의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정통부

생활용 무선기기 주파수 분배

정보통신부는 의료, 안전, 보안, 교통 등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생활용 무선기기 주파수를 20일자로 분배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배된 주파수는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MICS1)용(402~405MHz) ▲센서용 UWB2(3.1~4.8GHz, 7.2~10.2GHz) ▲물체감지센서용(24.05~ 24.25GHz) ▲지하철(철도 등 포함) 무선영상전송장치용(18.86~18.92GHz, 19.20~19.26GHz) 등 4개 주파수이다.

이번 주파수 분배는 다양하고 폭넓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전파 이용 추세를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u-라이프서비스 제공기반 구축과 함께 신규 산업 창출 및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정통부는 전망했다.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MICS)는 심장질환자의 체내에 이식되어 심장 박동 조절 등 심장활동을 지원하고, 외부의 제어기와도 자동으로 연결돼 환자의 심장상태를 관리하는 무선의료정보기기로서 심장질환자의 정상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센서용 UWB는 매우 낮은 출력과 500MHz 이상의 초광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근거리의 물체를 감지하는 센서로, 주요시설의 침입자 감시, 지하 매설물 탐지, 공항 출입자 검색, 교량 및 구조물 균열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4GHz대 물체감지센서는 전파의 반사원리를 이용해 특정물의 위치, 속도 등을 감지하는 소출력 레이더 센서로 도로상의 교통정보수집, 차량 사각지대 감지 및 자동문시스템 동작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철도 등 포함) 무선영상전송장치는 승강장 영상을 전동차에 무선으로 전송하여 기관사가 운전실 모니터를 통해



승강장 상황을 미리 확인해 역사 내의 인명보호 및 화재·침수 등 대형 재난사고 예방은 물론 미아 찾기, 유실물 찾아주기, 도착지 안내방송 등의 부가서비스 제공도 함께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주종옥 주파수정책팀장은 "앞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 간 통신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 바이오분야, 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주파수를 계속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청

187개 지원대상 과제 확정

- 올 하반기 192억원 지원키로 -

중소기업청은 구매조건부사업, 이전기술사업, 신기술디자인 개발사업 등 3개 기술개발지원사업 187과제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 총 19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업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정부가 지원(개발비의 75%이내, 3억원 한도, 2년이내)하고 개발성공 시 구매기관이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 주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73과제에 총 13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상품화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개발비용을 지원(개발비의 75%이내, 1억원한도, 1년이내)하는 '이전기술개발사업' 64개 과제에 총 4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은 또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및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디자인개발을 지원(개발비의 75%이내, 5천만원 한도, 6개월 이내)하는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50개 과제에 총 1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업체는 각 지방청에서 '현장 및 경영평가'와 전문가관에서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 업체는 이달 중 전문가관과 협약을 체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내년도 사업은 금년보다 39.8%증가한 590억원 예산으로 상,하반기 공고를 통해 500여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준공

광주시는 국토 서남권 부품소재 공급기지화를 목표로 첨단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할 전담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연구센터를 완공하고, 9월 4일 준공식을 갖았다.

이번 준공식은 광주연구센터를 유치한 이후 3년여 대역사 끝에 이뤄진 것으로 186억원(국비 156억, 시비 30억)을 투입, 대지 33,761㎡, 연면적13,870㎡ 규모로 건립됐다.

생기원 광주연구센터는 광주시 15대 핵심프로젝트 일환인 3대 주력산업(자동차, 전자, 광산업의 부품소재분야 기술지원)경쟁력 강화, 4대 전략산업 성장기반 구축(첨단부품소재분야) 및 7대 신성장동력산업지원센터(첨단부품소재 연구센터 건립, 운영)를 설정 추진한 결과이며 준공된 시험생산시설 활용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등 근접지원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센터의 준공은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교육 및 평가 등의 사업수행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지역산업체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첨단부품소재산업, 광산업, 에너지산업 등 신산업의 생산기반기술지원이 한층 용이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 극소형제어모터협의회, 경량고강도부품협의회 등 관련기업 및 대학, 연구소, 광주시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구축된 생산기반시설 등 인프라와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열,표면처리연구기반 및 솔라셀, 자동차 로봇 등에 적용될 차세대 동력전달모듈 등 부품소재산업육성에 필요한 생산기반시설 구축은 지속 추진할 계획에 있다.